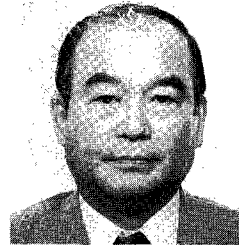


생산시설부터 소비계몽까지 한곳에 집결시킨 새로움에 놀랐다



奥村由巳

일본양계산업연구소

우선 한국양계박람회가 매우 성공리에 개최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95한국양계박람회 주최자인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위원장인 오봉국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의욕이 이처럼 훌륭한 박람회와 세미나를 성공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는 외국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와같이 훌륭한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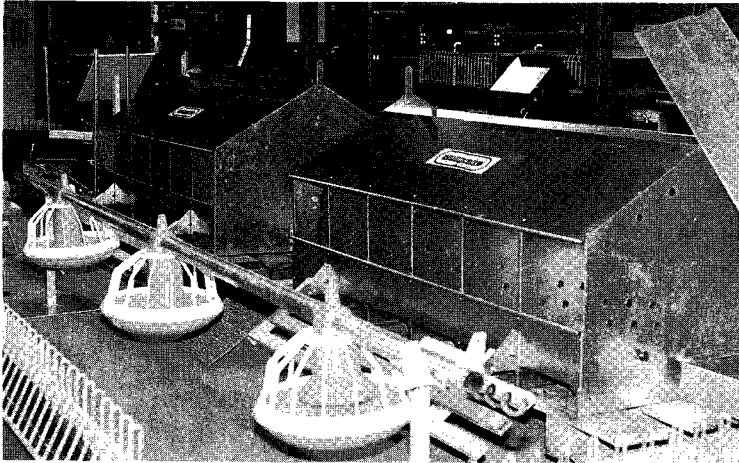
를 열 수 있는 한국의 양계산업에 대하여 다시금 경의의 눈으로 보고 이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된다.

돌이켜 보면 나와 한국의 양계산업의 만남은 약 25년전으로 소급된다.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일본회사는 미국의 육종회사 대리점으로서 일본, 한국, 대만을 담당하였는데 종계판매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고 생각한다. 그때의

한국의 인상을 지금의 한국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나라의 발전과 변화는 눈부신 것으로 느껴진다.

당연히 양계분야도 이 발전의 흐름속에서 커지고 근대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후 나는 총대리점을 부탁한 신기농장 사장이며 서울사료 회장이었던 고 이상윤씨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게 되었다. 그는 뒤



에 양계협회 회장직을 맡아 수년동안 중책을 수행하였고 나와는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작년 4월에 분하게도 고인이 되었다. 그가 회장직일때 협회사업으로 외국양계시찰을 하고 싶으며 일본을 소개해달라기에 일본의 양계장, 부화장, 도계장 등에 회원을 중심으로한 시찰단을 안내한 기억이 새롭다.

나도 수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많은 업계 관계자와 면식을 갖게되고 서로 우의를 돈독하게 맺게 되었고 두나라의 양계산업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가졌다. 25년전부터 10년전까지는 일본의 양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목표아래 생산과 소비는 자랑할 정도로 성장한 때여서 서로가 나눈 대화도 미래에 대하여

양계산업의 이상적인 틀에 대하여 말을 많이 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산업의 규모 면에서 생산도 소비도 그 당시는 일본쪽이 훨씬 크고 축산의 구조도 대상사, 식품회사, 농협 등에서 꽤 큰 투자가 이루어진 배경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브로일러 산업은 선진 양계국이 거의 계열화된 속에서 한국양계는 농가 부업양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내공업적으로 원가의식도 적고, 산업이라 하기에는 거리가 먼 존재였었다.

이와같은 산업의 뒤떨어짐을 고 이상윤씨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양계관계자는 「한국에는 한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고 있

었다. 당연히 양계의 근대화라든가 기계화는 언제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였고 종계, 부화, 채란계도 선진 양계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아주 뒤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양계에 대한 인상은 결코 훌륭한 것이 못되고 어느쪽인가 하면 세계의 수준에서 뒤떨어진 후진성을 느끼게할 정도였다.

나 개인의 양계와의 역사는 약 40년이 되며 나 자신도 처음에는 채란양계와 종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자신의 손으로, 피부로 닭과 접촉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의 양계인으로서 이 산업을 관찰하는 눈을 갖고 일본의 양계, 한국의 양계 그리고 세계의 양계를 보아왔다.

동남아 각국의 양계인들과도 만났고 미국, 유럽의 산업시찰도 여러번 다녀왔다. 이런 경험에서 방문하는 나라들의 양계산업의 특징을 그때마다 학습하고 좋은점과 문제점을 비교하는 일이 많았다.

산업의 구조, 사양관리, 계사환경, 위생대책, 영양과 사료생산의 기구, 유통과 소비,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나름대

로의 흥미를 갖고 견학하고 연구도 해 보았다. 양계의 선진국이라 하면 무어라해도 미국이며 광대한 토지와 지급가능한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계화에의 투자와 연구, 육종, 유전의 생화학적 기술의 진보 등이 일체가 되어 산업을 크게 하고 있다. 그 최대요인은 자기 나라가 큰 소비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제국도 똑같이 근대적 기술을 구사한 산업에의 공헌도가 높고 독자성을 갖고 있다.

지금, 전세계의 새롭고 다양한 기계, 시설, 약품, 육종 등 그 많은 것을 미국, 유럽이 대표하고 있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바란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양계산업이 다른 근대적 산업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실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양계가 높은 수준의 산업이고 진보적인 종합 산업으로서 우수한 관리 능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유럽 각국의 축산은 긴 역사가 있고 음식문



화 속에서 동물단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도 그런 뜻에서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축산보다는 쌀을 중심으로한 농경사회로서, 동물단백은 많은 어패류에서 섭취하였다.

이러한 관계도 있고해서, 축산, 양계라고 하는 동물을 주체로한 독자적인 산업의 연구개발은 취약적이기 때문에 급히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경험이라든가 기술,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한국의 양계를 25년 동안 보아온 인상이 이번에 KOPOEX 95의 열기이다. 대회장이 넘쳐흐를 정도의 인파와 대회장을 방문한 양계관계자의 눈빛이 뜨겁게 전체를 달아올리고 있

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나도 세계 여러나라의 양계 산업발전을 수없이 시찰했지만 멋진 것과 그저 그렇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다. 그것은 분위기에서 오는 열기에서 알 수 있다. 출품수가 많다든가, 흥미있는 새로운 전 시품이 다수 출품됐다든가, 참가인원이 많다는 것과는 달리 피부로 느끼는 전체의 분위기 때문이다.

전술한대로 25년에 걸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정말 새로운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양계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진보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역설로 소비와 생산의 언바란스에 따른 가격변동이라든가 급·만성적 질병에 의한 피해, 공해대책, 노동력의 확

보 등 옛날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고 통계적으로는 양계농장도 생산자도 적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의 박람회 that 훌륭하게 치루어진 것에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양계협회와 이를 받쳐주는 회원과 양계 관계자의 열의와 지혜로움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듣기에는 1993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금년은 10만 명이 내장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양계업자에 대한 산업전이 아니고 「닭고기와 계란」을 이해하고 더욱더 소비해줄 것을 요청하고 일반대중에 대한 PR의 마당이며 계몽운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세계의 전시회에 거의 전부가 양계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도 대상의 중심으로 생각한 계획은 모름지기 한국이 처음 일 것이다.

일본의 양계도 요즈음은 발전도 없고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으

로서 한국의 양계협회처럼, 내일을 향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우리산업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의 PR을 실시했다라면 적어도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대중과 국민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산업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있는 안전한 양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약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새로이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다. 이것은 바로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정부가 늘 간섭한 규칙은 적어지게 될 것이다. 산업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끊임없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똑같이 한국도 양계업 아니 축산업 전체가 자기 손으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그때에는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관(정부)과 학(연구소, 대학)이 이것을 보완해 가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관에 지도되고 학에 논평받고 있다

보면 양계업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양계는 협회가 생산자를 주체로 한 단체이고 학이 술선해서 지혜를 짜내고 관이 뒷받침 해가는 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의 박람회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의 한국양계는 더욱 급변한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밖에서는 GATT에 무역 축산물 수입자유화의 문제, 안에서는 산업의 재구조화와 집약화, 거기에 묶여서 노동력의 부족, 공해, 닭병대책, 사료원료가격과 공급의 불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부터가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의 진짜시대가 왔다고 본다. 산업을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후계자를 육성시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기꺼이 양계를 지망하는 매력있는 산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더욱 성대한 박람회가 개최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원하는 바이다.

-원고번역 임덕성(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광주집하장) - 